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행시 수석들 “국세청이 좋아요”

- 일반행정직서 2년 연속 지원

- ‘전통적 인기 부처’ 문체부 등보다 퇴직후 취업 쉬운 국세청 선호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렬 수석 합격자들이 2년 연속 국세청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0년 이후 국세청을 선택한 수석 합격자가 없었는데 2명이나 잇따라 국세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관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2017년도 수석 합격자가 국세청에 배치됐다. 2016년도 수석 합격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 사무관 시보를 거쳐 작년 9월부터 국세청에서 재직 중이다. 현재 수습 사무관인 2017년도 수석도 국세청에 배치돼 오는 9월 발령을 앞두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연도별 행시수석 합격자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15년도 행시 일반직렬 수석 합격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4명), 기획재정부(3명),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각 2명) 등에 임용됐다. 전통적으로 행시에 합격한 신입 사무관들이 선호하는 부처다. 지난 16년간 국세청에 간 수석 합격자는 없었는데, 최근 2년 연속 국세청을 택한 것이다. 신입 사무관 부처 배치는 본인이 희망하는 3곳의 인력 수요와 행시 성적, 연수원 교육 훈련 성적, 실무 수습 평가 등을 합쳐서 정한다.

행시 수석의 이례적인 국세청행에 대해 관가에선 젊은 사무관들이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무’ 분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퇴직 이후 ‘제2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퇴직하면 기업이나 대형 로펌·회계법인의 세무 관련 업무로 이직이 쉬운 데다,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개업할 수도 있어 젊은 사무관들이 선호한다. 한 30대 국세청 사무관은 “젊은 사무관들은 공직 생활 이후의 인생 설계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는 일반행정직렬뿐 아니라 재경직렬에서도 보인다. 한 경제 부처 서기관은 “재경직렬에서도 경제 부처의 宗家격인 기획재정부나 서울 근무가 보장되는 금융위원회 대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세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